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창업자와 임금근로자 비교를 중심으로

고언정*

¹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The Relative Influence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 Comparison of Entrepreneur and Paid employee

Eon-Jeong Ko^{1*}

¹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용 형태(창업자/임금근로자)와 사회적(사회자본) 및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서울시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 결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경제적 요인(가계소득 수준), 사회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 역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임금근로자가 창업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외에 자기효능감과 규범, 비공식네트워크 참여도, 비영리기관 신뢰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자는 경제적 및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중에서 규범만이 유의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지향하는 정책 실무자들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about the study of life satisfaction with type of employment(entrepreneur/paid employee), social factor(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factor(self efficacy) in Seoul. The empirical results using Seoul Welfare Panel showed that psychological factor was the most powerful, and economic (household income levels) and social factor were in order. Type of employment was also significantly affected on life satisfaction, and paid employee's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entrepreneur's one. In case of paid employee, psychological(self-efficacy) and social(norms, informal networks of participation, non-profit trust) factor in addition to the economic factor were significantly. In case of entrepreneur,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 and only norm among social factors were significant.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politicians and local public officials were reported.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Entrepreneur, Paid employee, Social capital, Self-efficacy

1. 서론

최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형태를 선택하는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고용 형태에 따른 삶의 질, 즉 삶의 만족도가 최종적인 선

택 기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OECD 국가간 삶의 만족도의 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13]. 이것은 삶의 만족도가 경제적 요인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측케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교신저자 : 고언정(ejcharly@hanmail.net)

접수일 11년 04월 15일

수정일 (1차 11년 06월 13일, 2차 11년 06월 21일)

게재확정일 11년 07월 07일

대한 폭넓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사람들의 삶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형태 즉, 고용 형태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의 정책적인 관심도를 고려해 볼 때 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이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제적 요인이외에 심리적(자기효능감), 사회적(사회자본)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봄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의 설명 변수로서 고용 형태(창업, 취업)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각각의 고용 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양상을 살펴보고, 끝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작적 정의들은 자아존중 정도, 생활능력, 생활의 질, 복지, 행복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2]. 최성재는 ‘한 개인이 현실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감정 상태로써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정도’로 보았다[12]. Neugarten 등은 삶의 만족도를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의 기쁨,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자신의 목적 성취, 긍정적 자아상과 자아가치를 느끼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8].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느낌의 복합체로 사회 경제적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만족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1 고용 형태(창업자/임금근로자)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어져 왔는데[14,16], 이것은 창업자들이 임금근로자들보다 대체로 자아 성취를 위해 좀더 많은 자유나 자율권,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26,27]. 이러한 자율성과 업무의 유연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있어서 임금근로자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30,21].

Schjoedt와 Shaver는 실증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창업

을 선택하는 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35]. Noorderhaven 등은 15개 유럽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떻게 삶의 불만족과 직무 불만족이 창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삶에 대한 불만족과 직무(직장내 민주적 방식관련) 불만족 모두가 창업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9].

2.2.2 사회자본

Putnam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개인의 사회네트워크 즉,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연결 및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혜성의 규범과 신뢰’로 정의하였는데[31,32], 많은 연구들이 Putnam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4,17].

Putnam은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친구, 애인 등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의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자본이 개인 및 집단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32]. Blanchflower와 Oswald는 평균 이상의 소득자 중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교육 및 소득보다 삶의 만족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15], Rodrik은 사회자본이 경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33]. 박희봉·이희창은 개인적 삶의 만족에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 및 사회적 요인보다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 제시하였다[9].

2.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원을 모두 동원한다는 의미를 포괄한다[19,23].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이해의 부족과 같이 자기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 극복하려고 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자원 부족과 같은 자기 외부의 일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영신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무려 25%이나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7]. Judge 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삶의 만족도와 강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24,25]. 이밖에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8].

2.2.4 개인적 특성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적인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Diener 등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1인당 소득과 주관적인 웰빙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9].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의 경우가 여성보다 높다는 결과[10]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6]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연령의 경우도 관계가 없다는 것[5]과 관계가 있다는 것[3]이 모두 보고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1,11]가 일반적이다. Helliwell, Diener 등 및 Banachflower와 Oswald는 다양한 인구통계 특성 중에서 기혼자, 고소득자, 여성, 백인, 고학력자, 자영업자, 퇴직자, 종교인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22,18,15].

3. 연구방법

3.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적 요인이외에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특히 고용 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첫째, 고용 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창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3.2 연구 대상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2008년에 수행된 서울시복지패널 1차 데이터 중 20세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 상용/임시직 종사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고용주(창업자)인 2,74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인구통계(전체=2744)

[Table 1] Demographics(N=2744)

구분		표본수(명)	백분율(%)
고용형태	(0)임금근로자(상용임시직)	2013	73.40
	(1)창업자(고용주/자영업자)	731	26.60
가계소득 수준	(1)100만원 미만	88	3.20
	(2)100-200만원 미만	445	16.20
	(3)200-300만원 미만	587	21.40
	(4)300-400만원 미만	511	18.60
	(5)400-500만원 미만	410	14.90
	(6)500만원 이상	703	25.60

교육수준	(1)초등학교 이하	103	3.80
	(2)중학교	158	5.80
	(3)고등학교	815	29.70
	(4)2년제 대학	255	9.30
	(5)4년제 대학	1176	42.90
	(6)대학원 석사 이상	237	8.60
연령	(1)20대	425	15.50
	(2)30대	860	31.30
	(3)40대	771	28.10
	(4)50대	474	17.30
	(5)60대 이상	214	7.80
성별	(0)여성	889	32.40
	(1)남성	1855	67.60

3.3 변수 측정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삶의 행복도의 관점에서 '귀하의 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10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 자본의 첫 번째 변수는 '신뢰도'로, 중앙/지방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비영리단체(자선,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규범'은 사회적 이타심, 호혜성, 공동체 의식 등을 포괄하는 9개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크'는 각종 모임 및 단체의 참여도로 측정하였는데, 시민단체, 교육 및 학술관련 단체, 정치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관련된 공식네트워크 참여도와 동창회, 동호회, 종친회,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공식네트워크 참여도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Rosenberg 척도[34]로 구성된 문항들에서 역기울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 가계소득 수준을 이용하였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변수들의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연구결과

4.1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설명력

사회자본 및 자기효능감과 고용 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 3의 전체 결과를 보면,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의 영향력($\beta=200, p \leq .01$)이 가장 컸으며, 경제적 요인인 가계소득 수준,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규범, 비영리신뢰도, 비공식네트워크 순으로

[표 2] 변수들의 신뢰도, 기술통계, 상관관계

[Table 2] Reliability, descriptive analysis, and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삶의 만족도	-	6.61	1.66	1													
2 고용 형태 ⁺	-	.27	.44	-.09**													
3 규범	.81	3.66	.54	.20**	-.02	1											
4 비영리신뢰도	.84	3.17	.59	.09**	-.04*	.18**	1										
5 정부/기업신뢰도	.90	2.78	.79	.01	-.01	.07**	.54**	1									
6 비공식네트워크	.81	2.19	.87	.09**	.06**	.10**	.06**	.08**	1								
7 공식네트워크	.88	1.47	.62	.01	.03	.04*	.07**	.09**	.52**	1							
8 자기효능감	.84	3.71	.52	.28**	-.05*	.38**	.04*	-.02	.13**	-.02	1						
9 성별 ⁺	-	.68	.47	.06**	.09**	.02	-.06**	-.04*	.22**	.05*	.04	1					
10 연령 ⁺	-	3.70	1.15	-.10**	.29**	.06**	.02	.05*	.08**	.03	-.07**	.14**	1				
11 교육수준 ⁺	-	4.08	1.28	.19**	-.19**	.10**	.03	-.04	.16**	.15**	.20**	.13**	-.40**	1			
12 가계소득 ⁺	-	4.03	1.52	.19**	-.01	.10**	.03	.01	.19**	.12**	.15**	.06**	-.07**	.41**	1		

*:p<.05, **:p<.01 +:[표 1]의 각 항목에 붙여진 숫자로 코딩됨. 삶의 만족도는 10점 척도, 나머지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됨

나타났으며,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연령(부(-)의 영향)을 제외한 통제변수들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고용 형태 역시 유의(β=.053, p<.01)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전체(β)	임금근로자(β)	창업자(β)
고용 형태	.053**	-	-
성별	.041*	.037	.042
연령	-.051*	-.038	-.083*
교육 수준	.054*	.061*	.025
가계소득 수준	.113**	.111**	.116**
규범	.090**	.092**	.091*
공식네트워크	-.032	-.039	-.017
비공식네트워크	.043*	.054*	.023
비영리신뢰도	.076**	.072**	.088
정부/기업신뢰도	-.030	-.027	-.040
자기효능감	.200**	.214**	.162**
F	36.06**	30.11**	7.49**
Adjusted R ²	.123	.126	.082

*:p<.05, **:p<.01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창업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표 4)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설명 변수 중에서는 비영리신뢰도, 비공식네트워크,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창업자는 이 중 비공식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4] 임금근로자와 창업자의 평균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means

	임금근로자		창업자		t값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삶의 만족도	6.69	1.67	6.36	1.62	4.62	.00
규범	3.67	.54	3.64	.54	1.07	.28
비영리신뢰도	3.19	.59	3.13	.61	2.08	.04
정부/기업신뢰도	2.81	.72	2.81	.75	.33	.74
비공식네트워크	2.16	.85	2.27	.94	-3.09	.00
공식네트워크	1.47	.61	1.50	.65	-1.41	.16
자기효능감	3.73	.52	3.67	.50	2.48	.01

*삶의 만족도는 10점 척도, 나머지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됨

4.2 고용 형태별 삶의 만족도

표 3에 임금근로자와 창업자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가져오는 설명 변수들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있다.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는 자기효능감, 가계소득과 사회자본 변수 중 규범, 비공식네트워크, 비영리신뢰도, 그리고 교육수준이 유의하였다. 창업자의 경우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가계소득 수준, 규범 순이며, 연령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5.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고용 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각 고용 형태별 삶의 만족도 설명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다차원적인 설명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것과 고용 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다차원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이외에 사회적 요인(사회자본)과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며, 이 중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경제적(가계소득 수준), 사회적(규범, 비영리신뢰도, 비공식네트워크) 요인 순이었다. 그리고 창업자 또는 임금근로자로서의 고용 형태도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유의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는데, 임금근로자가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는 자기효능감, 가계소득, 규범, 비영리기관 신뢰도, 교육, 비공식 네트워크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창업자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 가계소득, 규범, 연령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면 자기효능감, 규범, 그리고 가계소득 수준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는 창업자에 비해 사회적 요인(사회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무자들은 창업자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잠재 창업가의 창업 결정은 기존 창업가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설명 변수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자기효능감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지역 사회 문화와 관련되며, 정책적으로 이러한 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요성이 밝혀진 바, 사회적 이타심, 호혜성,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및 심리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경제적 도구이외에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지역적 확대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근로자와 창업자간의 인구통계 차이와 이로 인한 사회·심리적 특성 차이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Kim, K. T. & Park, B. G.,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 pp.153-168, 2000.
- [2] Yu, J. Y. & Kim, M. C., "Social Support and The Perceive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3), pp.151-165, 1996.
- [3] Kim, M. O.,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Handicap", Elderly welfare study. 21, pp.73-97, 2003.
- [4] Kim, Y. H., "Social Network Theory", Parkyoungsa, 2005.
- [5] Kim, E. K., "The Effects of Adult Children Related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Male and Femal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4), pp.27-36, 2002.
- [6] Park, K. H. & Han, H. K.,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Persons Who Reside in the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1, pp.43-61, 2002.
- [7] Park, Y. S., Kwak, K. J., & Kim, U. C., "Factors Influencing Stress and Life-satisfaction Level of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pp.79-101, 1998.
- [8] Park, Y. S., Kim, U. C., Chung, K. S., Lee, S. M., Kwon, H. H. & Yang, K. M.,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 - satisfaction among Primary, Junior High ,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pp.94-118, 2000.
- [9] Park, H. B. & Lee, H. C.,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Life Satisfaction: Socio-Economic Factors? or Social Capital Produc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17(3), pp.709-728, 2005.
- [10] Lee, S. M. & Kim, K. S.,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in Old Married Couple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1), pp.139-157, 2002.
- [11] Chung, H. J., Kim, T. H., & Lee, D. S., "Related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Chonbuk-do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pp.49-70, 2000.
- [12] Choi, S. J., "A Study about Development of elderly life satisfaction scale", Ewha Women's U. Korea Culture Research Institute Quarterly, 1986.

- [13]2010 OECD Factbook <http://www.oecd.org>
- [14]Blanchflower, D. G. & Oswald, A. J.,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pp.26-60, 1998.
- [15]Blanchflower, D. G. & Oswald, A.,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NBER Working Paper No.7487.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0.
- [16]Blanchflower, D. G., Oswald, A., & Stutzer, A., "Latent entrepreneurship across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45, pp.680-691. 2001.
- [17]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4-121, 1988.
- [18]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pp.276-302. 1999.
- [19]Feltz, D. L., "Self-confidence and Sport performance",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s*, 16, pp.423-457. 1988.
- [20]Gartner, W. B., Bird, B. J., & Starr, J. A.,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 pp.13-31, 1992.
- [21]Greenhaus, J. H. & Callanan, G. A., "Career Management", The Dryden Press: Ft. Worth, TX. 1994.
- [22]Helliwell, J., "Social Capital, the Economy and Well-being", *The Review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2001: The Longest Decade: Canada in the 1990s*.
- [23]Judge, T. A., Erez, A., & Bono, J. E., "The Power of Being Positive: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Self-Concept and Job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11(2), pp.167-187, 1998.
- [24]Judge, T. A., Bono, J. E., Erez, A., Locke, E. A., & Thoresen, C. J., "The scientific merit of valid measures of general concepts: Personality research and core self-evaluations", In J. Brett & F. Drasgow(Eds.), *The psychology of work: Theoretically based empirical research* (pp. 55-77). Hillsdale, NJ: Erlbaum. 2002.
- [25]Judge, T. A., Erez, A., Bono, J. E., & Thoresen, C. J., "The Core Self-Evaluations Scale(CSES): Development of a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56, pp.303-331, 2003.
- [26]Mannheim, B. & Schiffrin, M., "Family structure, rewards and strains as related to work role centrality of employed and self-employed professional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51, pp.83-101, 1984.
- [27]Naughton, T. J., "Contrasting models of working life among the self-employed: an empirical test",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pp.78-81. University of Georgia, Atlanta GA. 1987.
- [28]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pp.134-143, 1961.
- [29]Noorderhaven, N., Thurik, R., Wennekers, S., & van Stel, A., "The role of dissatisfaction and per capita income in explaining self-employment across 15 European countr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 pp.447-466. 2004.
- [30]Parasuraman, S. & Simmers, C. A. "Type of employment, work-family conflict and well-being: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pp.551-568, 2001.
- [31]Putnam, R., "The Proper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pp.35-42, 1993.
- [32]Putnam, R.,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London: Simon & Schuster, 2000.
- [33]Rodrik, D.,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NBER. Working Paper No.6350.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8.
- [34]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1965.
- [35]Schjoedt, L. & Shaver, K. G., "Deciding on an Entrepreneurial Career: A Test of the Pull and Push Hypotheses Using the Panel Study of Entrepreneurial Dynamics Data",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Vol.31, Issue.5, p733-752, 2007.

고 언 정(Eon-Jeong Ko)

[정회원]



- 2007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09년 7월 ~ 2010년 7월 : 서울 시복지재단 사업지원부 팀장
- 2010년 8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관심분야>

사회적기업, 기업가정신, 사회자본, 지역복지, 기부, 창업